민쌤: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유쌤: 안녕하세요? 퐁당퐁당 유쌤입니다.
민쌤: 유 선생님, 이번에 코로나를 뚫고 한국 다녀오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
유쌤: 처음에 2주 동안은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했어요. 물론 그 덕분에 가족들이 해 주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지만요.
민쌤: 그러셨군요. 2주 후에는 여기저기 구경 많이 하셨어요?
유쌤: 네. 남해안 쪽으로 여행을 했는데, 경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
민쌤: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곳도 많이 구경하고...정말 좋으셨겠는데요.
유쌤: 네, 맞아요. 그리고 쇼핑하면서 아이들 한복도 몇 벌 구해 왔어요.
민쌤: 아~ 한국학교나 역사 캠프에 필요해서 구해 오셨군요.
유쌤: 맞아요. 한번 보세요!
민쌤: 어머나, 정말 색깔이 곱고 예쁘네요.
유쌤: 그렇지요?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.
민쌤: 어디서 구하셨어요?
유쌤: 동네 시장에서 구했어요. 보통은 서울 광장시장에 가는데, 코로나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.
민쌤: 아, 서울의 명물인 광장시장요?
유쌤: 네,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지요.
민쌤: 광장시장은 세워진 지가 100년도 넘었다고 들었어요.
유쌤: 네, 1905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지요.
민쌤: 그렇군요. 광장시장이 한복이나 커튼, 이런저런 옷감 파는 곳으로 유명한가요?
유쌤: 맞아요.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.
민쌤: 결혼 예복이나 혼수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?
유쌤: 네, 백화점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품질은 아주 좋아서 알뜰파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지요.
민쌤: 음, 그 외에 또 뭐가 유명한가요?
유쌤: 농축산물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건이 아주 많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갖 먹거리들로 인기가 정말 많아요.
민쌤: 평소 광장시장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
유쌤: 보통은 주부들이 장을 보러 많이 나와요.
민쌤: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할 거 같은데요.
유쌤: 맞아요. 거기다 장사하는 분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져서 양도 많이 줘요.
민쌤: 적은 돈으로 푸짐한 반찬거리를 살 수 있으니까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 같네요.
유쌤: 물론이지요. 하지만 주부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.

민쌤: 그래요? 또 누가 광장시장을 자주 찾나요?
유쌤: 저녁에는 넥타이 부대가 쏟아져 나오곤 해요.
민쌤: 넥타이 부대요? 아, 직장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
유쌤: 네,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지 주변에 사무실들이 많거든요.
민쌤: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시장을 찾는다는 거지요?
유쌤: 말도 마세요. 집에 가기 전에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고,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잔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.
민쌤: 시끌벅적하겠는데요?
유쌤: 그럼요. 저녁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만 해도 북적북적하지요. 거기다 데이트하는 젊은이들도 꽤 많아요.
민쌤: 와~ 젊은이들도 많다니 좀 의외인데요?
유쌤: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젊은이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.
민쌤: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진 장터, 아주 정겨운 풍경이 그려지는데요.
유쌤: 그렇지요? 전통시장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진솔하게 보여 주는 공간이에요.
민쌤: 그래서 외국인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.
유쌤: 맞아요. 거기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늘 푸짐하고 넉넉한 느낌이 들어요.
민쌤: 아, 아까 광장시장이 온갖 먹거리들로 인기가 많다고 하셨지요? 어떤 게 유명한가요?
유쌤: 제일 먼저 손꼽는 음식은 녹두 빈대떡이에요. 그 자리에서 녹두를 갈아서 노릇하게 부쳐 주는데, 그 맛이 일품이지요.
민쌤: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.
유쌤: 워낙 맛있고 유명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배송도 된다고 해요.
민쌤: 와~ 대단한데요.
유쌤: 그렇지요? 고소하고 바삭한 그 녹두 빈대떡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.
민쌤: 아유, 배고파라. 녹두 빈대떡 먹어 보고 싶네요!
유쌤: 네, 다음에 한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 드릴게요.
민쌤: 정말요?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데요? 아무튼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다른 음식은 또 뭐가 있나요?
유쌤: 마약김밥하고 육회도 유명해요.
민쌤: 마약김밥은 말만 들어 봤어요.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먹게 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?
유쌤: 맞아요. 톡 쏘는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조그만 김밥이거든요.
민쌤: 그렇군요. 마약김밥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.
유쌤: 민 선생님, 나중에 광장시장에 꼭 가 보셔야 할 거 같네요.

민쌤: 그러게요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.
유쌤: 전통시장은 맛있는 음식과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에요.
민쌤: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시면 꼭 전통시장에 들러서 이 분위기를 경험해 보세요.
유쌤: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보시고요.
민쌤: 그런데 유 선생님, 광장시장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?
유쌤: 지하철을 타고 종로 5가나 을지로 4가에서 내리시면 갈 수 있어요.
민쌤: 그렇군요.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은 어떠한지,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얘기 나눠 주세요.
유쌤: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
민쌤: 그러고 싶은데,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단어들을 깜박한 거 같지요?
유쌤: 어머, 그렇네요. 오늘의 단어는 인기, 인심, 직장인이에요. 인기, 인심, 직장인.
민쌤: 이 단어들의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유쌤: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
민쌤: 안녕히 계세요.

<주요 단어>

1. 인기: 어떤 대상에 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좋아하는 마음
    - 그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.
    - 우리 팟캐스트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.
2. 인심: 사람의 마음
    - 시골 인심은 언제나 넉넉해요.
    - 한국 사람들 인심이 참 좋아요.
3. 직장인: 직장에 다니는 사람
    - 직장인들은 월요일을 좋아하지 않아요.
    -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는 서울 시내가 복잡해요.